# "이제 고개를 드세요, 아버지"

## '가정의 달'에 고개 숙인 아버지 대변한 책들 쏟아져

현대 가족사회에서 점차 자리를 빼앗기고 있는 '아버지'의 존재를 새삼 일깨운 책들이 서점가에 조용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이제까지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가 주로 페미니즘의 시각과 부모로서 의무만을 강조하는 경향이었다면, 최근의 책들은 '고개 숙인' 아버지를 대변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우선 글의 서술 방식이 냉담하지 않다. 낸시 매이어의 《아버지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정송, 문호샘), 《아버지 마인드 스토리》(무크출판사), 《남자가 겪는 인생의 사계절》 등은 오늘날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를 묻고 있다. 이 책들은 또한 지금까지 '아버지=남성'이라는 식의 페미니즘 시각에서 벗어나 현대사회의 가족 속에서 아버지를 이해하려는 시각으로 기술되어 있다.

**현대 가족사회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아버지'의 존재를 새삼 일깨운 책들이 서점가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다.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부모로서의 의무만을 강조했던 이전의 책들과 달리 최근의 책들은 '고개 숙인' 아버지를 대변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영화 〈아버지〉의 한 장면.

### 아버지의 '샌드위치 갈등' 이해

《아버지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는 '아버지의 전화' 공동대표이자 자녀교육 문제를 연구하고 강의해 온 한국자녀교육상담소 정송 소장이 '아버지의 전화'에 걸려온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한 책.

많은 부분이 아버지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자녀교육의 비법(?)을 강조하고 있지만 책의 1부에서는 오늘날의 아버지가 갖고 있는 고민을 그대로 보여 준다. 직장에서의 명예퇴직, 조기퇴직을 당하거나 사업에 실패함으로써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당하고 고민하는 남편들, 직장에 충실한 나머지 아내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아내가 도박에 빠지거나 외도를 함으로써 일어나는 가정파탄, 밖에서는 호인이면서도 가정에서는 폭군으로 행동하는 성격 때문에 별거한 사례 등 가정에서 아버지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갖가지 일들이 예시되어 있다.

《아버지 마인드 스토리》와 《남자가 겪는 인생의 사계절》은 40대 아버지들이 처한 사회 현실과 청춘을 지나온 시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을 보여준다.

《아버지 마인드 스토리》의 저자인 낸시 메이어의 말에 따르면, 청춘을 지나온 아버지의 이상증후군에 관하여 대부분의 남성은 삶에 대한 불안감, 기회를 놓친 아쉬움, 사회생활의 위기감, 무미건조한 가족관계, 만성 피로감, 고혈압과 위궤양, 심기증, 성적 능력의 쇠약, 살아온 삶에 대한 허무감 등을 느낀다고 밝히고 있다. 아버지로서 자녀와의 단절로 인해 생기는 소외감에 대해 쓴 부분은 밑에서 밀리고 위로는 눌리는 아버지들의 '샌드위치 갈등'을 아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아이들이 자기 문제를 언제나 엄마에게로 가져가는 것을 얼마쯤은 부럽게 여겨왔던 겁니다. 젠장, 줄곧 그랬다니까요. 내게로 와서 자기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좋겠는지 물어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두 책은 같은 내용을 담으면서도 《아버지 마인드 스토리》가 실제적인 예증을 많이 두고 있는 반면, 《남자가 겪는 인생의 사계절》은 좀더 이론적인 분석을 하고 있다.

못난 자식의 회한을 담고 있는 책들도 여럿 보인다. 그 중에서 소설 《아버지》의 1백만부 돌파 기념행사로 실시한 '아버님께 편지쓰기' 당선작 모음 《아버님전 상서》(김경연 외, 문이당)는 좀더 다른 감동으로 독자들을 맞이한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은 과거 중고등학교 때 어버이날을 맞아 쓰기 싫어 끙끙대던 '아버님전 상서'와는 격이 다르다. 각 필자들의 후회스러운 목소리를 통해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작 〈아버지 죄송합니다〉는 친정의 넉넉하지 못한 형편 때문에 부유한 시댁에 행여나 흉이라도 잡힐까봐 곱추등을 한 아버지 대신 큰아버지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들어가겠다고 했던 철없던 불효, 그 뒤 입덧하는 딸을 위해 버스를 세 번이나 갈아타고 손수 들고 온 청국장과 겉절이를 집 앞 수퍼에 맡기고 돌려보내야 했던 아버지에 대한 회한의 내용을 담고 있다.

### 냉철한 분석과 연구 필요

《아직도 꿈에 보이는 그 얼굴, 아버지》(신경림 외, 산하)도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아버지에 대한 회상을 담고 있다. 이 책은 그 자신이 아버지인 만화가 이현세, 생물학자 원병오, 소설가 한승원, 역사학자 이이화, 고려대 총장 홍일식, 개그맨 서세원, 재야인사 계훈제 씨 등 26명의 사회 저명인사들이 쓴 아버지 이야기. 가족 공동체의 중심이면서 거역할 수 없는 집행자였던 그들의 아버지에 대한 생각과 기억들이 감동과 함께 진한 향수를 느끼게 한다.

필자들 모두 사회 각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이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교훈은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게 해준다. '오늘날 아버지라는 존재는 과연 어느 자리에 있는가, 그 자리는 불쌍하게 비쳐져야 하고, 눈물 섞인 동정을 받아야 하는 자리인가?' 하는 의문에 필자들은 고개를 내젓는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물려준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식에게 떳떳했던 아버지를 그린다.

한편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딸에게 들려주는, 인생 교훈이 담긴 서간문을 모은 책들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필립 체스터필드의 《내 아들아 너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을유문화사)는 이미 스테디셀러로 꾸준히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책이다. 이외에도 맥스웰 퍼킨스가 쓴 《아빠가 딸에게》(황병하 옮김, 이레)도 같은 맥락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자가 무겁고 진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반면에 후자는 일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아버지인 저자의 사회·문학·가정·교육 사상이 농축되어 있어 읽는 재미가 있다. 특히 저자가 직접 그린 일러스트가 일품이다.

과일행상, 다방 종업원, 보일러공으로 전전하다가 현재는 수원검찰청 구두닦이인 장용호씨가 아들 조해와 함께 14개월간 백두대간을 종주하며 쓴 산행기 《아들아, 세상을 품어라》(뜨인돌)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떠해야 한다는 암시를 던져준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벽을 허물고 함께 고난을 헤쳐나가면서 가까워지는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어 진한 감동과 여운을 남긴다.

하지만 소설 《아버지》의 대히트 이후 출간된 책들에서 아버지라는 인물들이 너무 감상적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어머니'로서 여성을 냉철하고 때로는 대담하게 분석하는 여성학에서처럼 아버지에 관한 연구와 심도 깊은 글을 담고 있는 책은 쉽게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성수〉